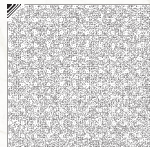




2021년 신년 메시지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시편 31,2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새해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의 기쁨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복음화란 우리 신앙인 각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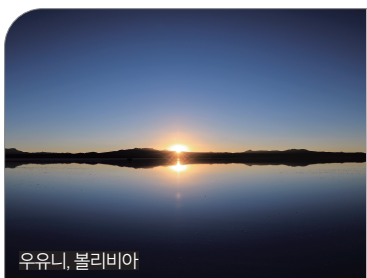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해 우선적인 사랑과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수호의 최일선에서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염수경



우유니, 볼리비아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26)

여명(黎明)입니다. 3,700m 고원에서 맞이하는 여명에는 상서로움이 묻어납니다. 우유니, 케추아어로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그 빛이 결코 치우침이 없는 새날입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는 너와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오늘, 그분 안에서 만난 우리가 다 같이 평화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